

마음 통한 다섯 여자 ‘세상 흔적’

사진작가서양화가 ‘죽장망혜’ 전 … 서신갤러리서 10일까지 전시



신은경 작 ‘스트레인저(stranger)’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 들어가니, 폭포도 장히 좋다. 여산이 여기로 다…”

대지팡이를 짚고, 짚신을 신고, 조롱박만을 찬 간소한 차림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린 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산천을 구경하는 내용을 엮은 단가의 한 대목. 마음의 티끌 벗어 던지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연 다섯 여성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사진작가 김혜원 신애자 신은경 양지영 그리고 서양화가 임현채씨가 세상 이곳 저곳을 다녀온 흔적을 전시장에 모았다. 오는 10일까지 전주 서신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전 ‘죽장망혜’.

지난해 ‘뷰 포인트((view point)전’으로 시작된 백제예술대 사진과 동문들이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는 다큐멘터리프로젝트 기획사진전 그 두 번째 자리다.

해외 강산풍경을 찾아다니며 구경한 견문과 감상을 짧은 사진영상으로 옮겨놓은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지난 2년간의 기록물.

만안니 김혜원씨는 몽골여행 풍경이다. 그 동안 작업해온 ‘Commercial Landscapes’의 시리즈로 사막과 초원 등 오지로 뻗어가는 세계 속 유려화된 상업공간을 통해 소비시대에서의 ‘땅’의 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재 독일 유학중인 양지영씨는 독일 학우들과 미국수학여행에서 촬영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cinema #1-8’란 제목을 단 작품들은 아웃포커스로 촬영해 오래된 영화처럼 연출됐다.

신애자씨와 신은경씨는 지난 2월 태국여행에서 촬영한 이미지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신애자씨는 화려한 수도 방콕의 왓 프라깨오 사원을 보다 더 험란하고 위압적으로 드러나도록 포토샵으로 합성했다. ‘스트레인저(stranger)’를 주제로 한 신은경씨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야생의 자연이 이제 관광지가 되어버린 풍경을 포착했다. 서양화가인 임현채씨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여행 중 촬영한 것으로, 여행자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이동 수단 안에서 바깥 풍경을 담았다.

/김미순기자 zzag@

이경선의 아중리 블루스



참 바쁘다. 여자 혼자 그것도 도움 없이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다. 큰아이 8살, 작은아이 5살, 그래도 다행인 것이 딸만 둘인 탓에 활동량 많은 아들을 키우는 엄마에 비하면 투정에 그칠지도 모른다. 한참 손이 많이 가는 1학년 큰아이는 엄마의 속을 읽기라도 하는 양 학교 다녀오면 동생을 챙기는 게 참 용하다.

누군가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이 고생한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 똑똑한 부모는 남의 자녀를 가르치려 다니느라 정작 자기자식은 남에게 맡겨 키우기가 쉽다는 얘기다. 똑똑한 부모란 일하는 부모라는 말이겠지. 딱 그 꼴이다.

아침 7시부터 아이들과 시작된 전쟁은 식사시간 때면 최고조가 된다. 작은아이를 챙기면 큰아이가 놀고, 큰아이를 좀 거들면 작은아이가 물을 쏟거나 일을 저지른다. 큰아이의 등교시간은 오전 8시20분, 작은아이 유치원버스 타는 시간은 8시10분. 아이들이 각자의 갈 것으로 향하고 나면 집안정소부터 시작해 얼마 없을 때 돌아올 아이를 위한 먹거리 준비로 한창 요란을 떠난다.

한숨 돌릴 겨를 없이 강의를 위해서 학교로, 또 지휘를 위해서 합창단으로 또 연주회 연습장소나 오페라단으로 뛰고 또 뛴다. 그렇게 돌고 뛰고 나면 하루 여정을 마치는 시간은 밤 10시. 자진 몸을 이끌고 집이라고 돌아와 환관에 들어서면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하고 엄마를 기다리는 두 아이의 모습 보다 핵폭탄 3방은 떨어졌을 법한 현상이 손길을 먼저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입고 갔던 옷들과 양말들이 여기 저기 널브러져 있음은 물론이요, 장난감과 만화책들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으며, 스스로 해결한답시

기러기 엄마와 아이들

고 1학년짜리가 차려먹었던 밥상, 그 밥상 밑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밥풀들의 잔해들! 그나마 그 사이로 나 있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만나면 이내 안도하고 만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를 선택하고 늦은 유학의 길을 선택한 아빠 그리고 그를 믿고 밀어주며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면 울고 투정부리지 않는 아이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가정의 풍경이다.

하루는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이태리로 떠나시는 공학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데?”,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빠 뻘이 뻘이 그랬어”. 시간 관념이 없는 아이로서는 그 인사말이 아빠를 그곳에 오래 계시게 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빠 보고 싶어?”라고 물어봐야 “네! 보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 절대 먼저 아빠얘기를 꺼내지 않는 아이들… 혼자 이겨내야 할 현실의 무게 앞에서 힘들어 하며 남편이 그리워 눈물짓는 엄마의 모습보다 아이들이 훨씬 어른스러울 때가 있다. 역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인가 보다.

남편이 생각날 때는 많다. 장본 보따리를 꾸미며 들고 집으로 올라올 때, 전구가 나갔을 때,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영화보고 싶는데 옆구리가 허전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동물원 갈 때다.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아이를 들어주지 못할 그걸 참으려고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간다. 왜냐하면 엄마는 강하고 아줌마는 용감하니까.

이제서야 알 것 같다. 코골며 자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취해서 내 집 문 열기도 “아! 실례가 많습니다”라고 하던 남편의 남편이 소중한지 말이다. 겨울이 다가가는 이 계절에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연출되어 갈 것인지 기대하시라. <오페라가수>

전 시

희상스님 우진문화공간서 전시



지난해 불일미술관전시에서 1천 켤레 고무신 설치작업으로 주목 받은 한국화가 희상 스님(43)이 전주전시회를 연다. 3일부터 15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전시실.

우진문화재단 제24회 청년작가초대전 주인공인 희상 스님은 전주출신으로 스무살 해인사로 출가, 통도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대구 청도의 운문승가대학을 마치고 동국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독일 브레멘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땃돌 위 벗어놓은 고무신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은 스님은 고무신에서 발견한 다양성과 통일성의 작업의 발단이 됐다.



김종민 작 ‘가’

한국의사미술가 17인 초대전

의술과 미술, 두 분야에서 열정을 불태워 온 한국의 대표적인 의사미술가 17인의 초대전이 오는 4일까지 전주 수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과 인천, 평택, 전주에서 현직 의사이면

서도 또한 화가로서 미술계에 깊이 발을 담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일김종민 손경애 송영철 신규택신우종 이계용 이순표 임동란 장인성 장혜숙전영경 정경숙 진소자 최인수 최중환최장희씨가 참여했다.



한규선 작 ‘젊은이의 양지’

사진예술연구회 ‘호룡’ 사진전

전주대 사진예술연구회 ‘호룡’(지도교수 이영엽)이 제25회 정기사진전을 연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전북학생종합회관 제2전시실에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전주대 학생회관 2층에서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이영엽 교수의 ‘겨울나그네’를 비롯 30여점을 선보인다.

한국민족서예인협회 ‘서예체험전’

한국민족서예인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최동명)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장애우와 함께 하는 서예체험프로그램 ‘먹빛 통해 내 마음더 찾아가는 체험전’을 실시한다.

3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후 3시 전북도청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험전은 단순한 글씨연습이 아닌 마음을 들여다 보는 치료요법을 이용한 수업. 전북 양들의집 8명과 진남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9명, 광주 인화원 10명 등 27명의 장애우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과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선보인다. /김미순기자

공 연



전주남성합창단, 5일 정기연주회

일본 땅 안의 조선인 마을 우도로. 전주남성합창단(단장 김영재)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잠시, 자신의 역사와 인권, 거주권을 두고 일본 정부와 합계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주민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연다.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연주회는 박상만씨 지휘로 고전명성가와 민요 합창, 오페라 합창 등의 테마로 꾸며지며 바리톤 김동규씨, 소프라노 황인영씨가 특별 출연해 우리 민요와 오페라 아리아 등을 선보인다. 또 피아니스트 정진숙씨와 전주 35사단 군악대가 반주로 참여한다.

한편 합창단은 이날 연주회에서 판매한 회원권 및 10주년 기념 CD 수익금을 우도로의 조선인 마을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골드핑거스 5일 소리전당서 연주

제7회 골드핑거스 정기연주회가 오는 5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린다.

골드핑거스는 전주대 송미희 교수의 문하에서 배움을 같이 한 박가영 흥인숙진진은 김미란김혜원 5명의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지난 1993년 창단했다. 졸업 후 무대 연주가 어려운 현실에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기 위한 무대로 이번 연주회에서는 ‘피아노를 위하여’를 주제로 모차르트와 리츠, 쇼팽 등의 곡을 차례로 선보인다.

‘진북문화의집 페스티벌’ 내일 개최

진북동민의 날 기념 진북문화의집 페스티벌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전일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진북문화의집과 진북동 나도지봉사대가 공동주관하는 이날 페스티벌은 전주시립극단의 연극 ‘다시라기’ 공연과 민요, 우리춤체조, 판소리, 마술, 스포츠댄스 등 공연이 진행되며 박밴드 전북드림싸운드의 초청공연도 마련된다. 또 동민노래자랑과 현장체험학습,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춤꾼’ 최은정 한벽극장서 공연



춤꾼 최은정씨(57)가 전주전통문화센터 터의 기획무대인 ‘우리춤의 숨결’ 49번째 주인공으로 초대됐다.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센터 한벽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인 최씨는

강선영 선생에게 사사했으며 제1회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 은상, 한국유네스코 무용대회 안무상 등을 수상했으며 중국과 튀니지, 멕시코 등 다수의 해외초청무대에 서왔다.

이날 무대는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최은정무용단과 호남춤연구회의 김명진, 권민희, 박남영, 백유영 등 중견춤꾼들과 함께 한다.

춤무와 진주검무, 즉흥무, 호남산조, 장고춤, 태평무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순기자 zzag@

/편집=박문형기자·pmh1492@

“‘이탈리아 관화전’ 내일 익산에서 열려요”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등 전시

‘이탈리아 관화 400년 전시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오는 11월4일 ~ 12월 3일까지 한 달간 익산 보석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사)한국공예문화협회와 서동아트비전이 주최하고, 이탈리아 관화 400년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르네상스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장된 오리지널 관화 11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신고전주의, 낭만주의까지 근대미술 이전 서양미술사의 흐름이 한 눈에 볼 수 있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에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귀도 리니, 티치아노, 푸생 등의 작품을 당대나 그 후에 관화로 섬세하게 창작한 작품들이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 수도원에 프레스코화로 남긴 ‘최후의 만찬’을 지난 1787년 관화가 라파엘로겐이 관화로 완성한 작품과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시스틴 성당의 ‘최후의 심판’ 벽화를 12장의 관화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완성도와 예술성이 높은 세계적인 관화작품만을 소개해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새로운 심미안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기간 동안 휴관일 없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설명회는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2시, 4시 모두 4번 실시한다. /익산=정성현기자 jsh@



‘이탈리아 관화 400년 전시회’가 오는 11월 4일~12월 3일까지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전시된다.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 공모

‘2006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 후보작을 공모한다. 만화 부문은 2005년 1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표된 만화작품으로 출판사와 작가 모두 응모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부문은 10월31일까지 국내에서 방송, 상영된 국산 장작품으로 장편, 단편, 시리즈 등 3개 부문에 응모할 수 있다. 예전 대상 시상식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캐릭터 부문은 10월31일까지 개발돼 유통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라야 하며 한 회사가 캐릭터 여러개를 출품할 수도 있다. 각 부문 대상 1편은 대통령상과 상금 1000만원, 우수상 4편은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특별상 2편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준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www.kocca.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8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뉴스

‘서예대전’ 예술회관에서 전시



김윤호 작 ‘숙죽각’

과 초대작가 서예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시상식은 4일 오후 3시 전시장에서 열린다. /김미순기자

제17회 전라북도 서예대전 및 초대작가전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린다.

(사)한국서예협회 전라북도지회(회장 윤점용)가 주관한 17회 전라북도 서예대전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윤호씨의 ‘숙죽각(宿竹閣)’을 비롯 입상작 250여점